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 순 자 · 김 호 정[†]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의상디자인 전공

1.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복이란 물질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하며 그 시대 사회 속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내면적인 인간정신, 나아가 시대 사회정신을 나타내는 조형적 형태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미이다. 여성들은 복식을 통해 자연이 부여한 자신의 신체를 거부하고 새로운 모습을 만들기를 원하였고, 더 아름다워 지고자 하는 욕구를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과장이란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미적 표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타인의 주목과 찬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과장적 표현에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의 조형적 특성의 하나인 과장적 표현의 특성과 의미를 통해 복식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복식에서의 과장형 복식과 현대 패션에서의 과장적 표현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시대적 배경과 미의식을 통해 그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는 관계 서적과 선행논문 및 학위논문 등을 참고로 하였다. 과장의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문학, 미술, 건축, 복식 등에 관한 문헌 자료를 살펴보고, 역사복식에서의 과장형 복식과 현대패션에서의 과장적 표현에 대한 고찰을 위해 세계사, 복식사, 패션현상에 대한 서적과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현대 패션은 여성복에서 코르셋이 제거되어 패션의 새로운 개념의 성립된 1910년경부터로 받았고 그 이전의 복식은 역사복식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 본 론

1) 역사복식에 나타난 과장형 복식

[†]교신저자 E-mail hojung96@nate.com

역사복식에서의 과장형 복식은 수직적 과장, 수평적 과장, 부분적 과장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수직적 과장의 복식은 중세 시대의 종교적인 이념으로 신을 상징하는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수평적 과장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와 로맨틱, 크리놀린 스타일 시대의 복식에서 볼 수 있었다. 귀족 중심의 패락과 향락주의가 복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성 신체의 관능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스커트의 부피를 크게 늘린 형태로 나타났다.

부분적 과장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와 로맨틱, 버슬과 s-커브 스타일 시대로 나타났다. 목과 팔, 엉덩이 부위의 과장은 여성의 에로틱한 신체와 자연적 신체를 동시에 표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능성과 자아표현으로서의 욕구충족을 과잉장식이나 버팀대의 크기를 과장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과장적 표현

현대패션에서의 과장적 표현은 신체 우선형 과장과 신체 무시형 과장, 신체 왜곡형 과장을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신체 우선형 과장은 뉴욕과 바디컨셔스 룩에서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장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로 과장되었으며, 신체 의식의 변화와 여성성의 변화가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 무시형 과장은 플루아레의 동양풍 패션과 밀리터리 룩, 박 룩과 레이어드 룩, 해체주의 패션 그리고 맥시멀리즘 패션에서 볼 수 있다. 신체 무시형 과장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의 변화, 가부장적 이념올로기의 변화로 여성 주체성의 확립을 이루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신체 왜곡형 과장은 해체주의 패션과 맥시멀리즘 패션으로 변형과 비대칭화 등으로 과장형을 이루는 표현이다. 자신만의 개성 창조가 중요시됨에 따라 이상적인 신체미의 개념도 다양해지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역사복식에서의 과장형 복식은 수직적 과장, 수평적 과장, 부분적 과장으로 유형화되었고, 현대패션에서의 과장적 표현은 신체 우선형 과장과 신체 무시형 과장, 신체 왜곡형 과장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역사 복식에서의 과장적 복식의 상징적 의미는 종교적 위엄 어떤 노동에도 종사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우월감의 의미가 있었으며, 부와 권력,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크게 과장하여 남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여성들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 신체의 성적인 부위와 생산부위가 동시에 과장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여성의 관능적·모성적 이미지를 역사복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과장적 표현의 조형적 특성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과장하여 강조하는 신체 우선형 과장과 복식과 신체 사이의 전체적으로 풍성하거나 특정 부위에 공간이 집중되어 있는 신체 무시형 과장, 신체 본래 형태의 비례에 대한 무시와 신체와 분리되어 복식의 독립적인 미를 추구하는 신체 왜곡형 과장으로 유형화되었고, 현대 패션에서의 과장적 표현의 상징적 의미는 신체 의식의 변화, 여성성의 변화, 조형적 표현과 유희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역사복식과 현대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을 비교 고찰한 결과 역사복식에서의 과장은 남성
에 의해 주도된 사회에서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미의식을 의미했지만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과
장적 표현은 역사복식에 비해 적극적인 표현의 방법으로 신체를 잇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과장함으로써 신체를 재해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참고문헌

- 김윤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김수경 (1998). “서양복식에 표현된 여성 신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복식 37호.
- 김정진 (1999). “복식사에 나타난 인체의 과장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명희, 박은선 (2000). “소매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 *전국대학교 생활문화예술논집* 23.
- 박현신 (2002). “의상에 있어서 신체부재의 유형 연구.” *디자인학회지* 제15권 제3호.
- 이옥희 (2000). “이상적인 인체미와 복식디자인의 착시효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말희 (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최현숙 (1996).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조명(Ⅰ), *대한가정학회지* 34
권 1호.
-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혜정 (2000). “20세기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
사학위논문.